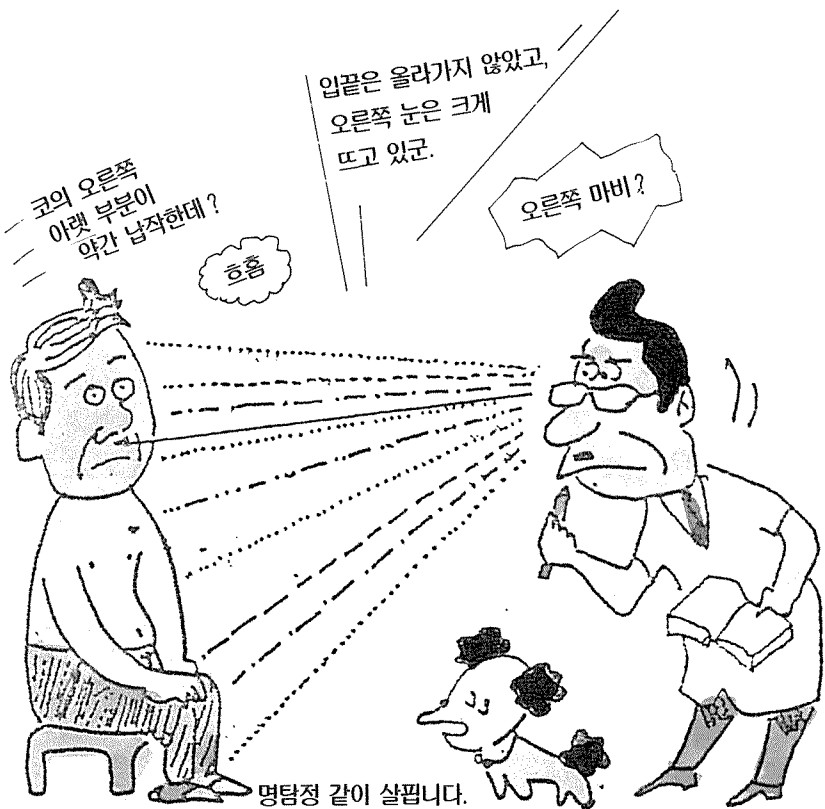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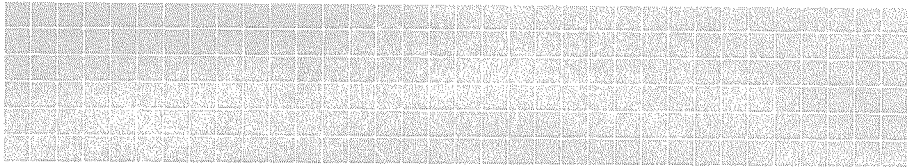


장해 정도의 판정

신경계가 손상된 경우, 아주 복잡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, 신체 진찰법의 하나로 '신경내과학적 진찰'이 있다. 이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짚는 것 등을 관찰하는 것으로, 의사는 이것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.





위치감각은?

눈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움직이는가? 조절시야는? 시력은?

감각계는?
피부를 바늘로 찌르거나, 소리를 진동시켰을 때 뼈의 반응은?

입술과 혀의 근육은?

언어장애의 종류는?
음식물이 혀에 닿았을 때의 감각은 있는가?

수족의 각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는지, 근육의 긴장상태는 굳어 있는가 부드러운가?

수족의 움직임은?

이상한 자세를 보이지는 않는가?

이처럼 여러가지 해부학적 검사를 통해 뇌의 손상정도를 추측합니다.

보행에 이상은 없는가?

